

- 작성 _ 김석중 책임연구원 · 배중남 초빙연구위원
T) 033. 250. 1393 (sjkim@gdri.re.kr)
- 감수 _ 김정호 원장
T) 033. 250. 1300 (jhkim@gdri.re.kr)

의료관광산업 : 국내외 동향과 강원도 추진방향

2008. 7.

목 차

Contents

요 약	
Ⅰ. 융복합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	1
Ⅱ. 국외 의료관광산업 동향과 시사점	2
Ⅲ.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실태와 전망	6
Ⅳ.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추진방향	11

요 약

1. 융복합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

- u-Health의 보편화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의료관광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
- 인도, 태국,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
- 우리나라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
- 제주도, 부산, 인천, 대구 등을 비롯하여 국내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
-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 의료관광산업의 현황과 추진전략, 성공요인,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강원도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여건을 분석한 뒤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

2. 국외 의료관광산업 동향과 시사점

- 싱가포르는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(OneStop 서비스센터) 운영 등 적극적인 의료관광활성화를 통해, 2012년까지 10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와 30억 달러의 외화수입, 1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
- 태국은 경쟁우위 산업인 관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료+휴양컨셉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세계 제일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이룩하여 2007년 현재 150만 명의 환자와 2조 6천억원의 의료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음

- 인도는 저렴한 진료비(선진국 대비 1/8의 수술비용, 태국에 비해 30% 이상 저렴), 짧은 시술대기시간, 선진 의료기술 확보, IT강점을 활용한 홍보 및 고객유치, 의료관광을 다른 수출산업과 같이 우대하는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매년 15%씩 성장
- 외국 의료관광 성공요인
 - 선진국 대비 저렴한 수가와 대기시간이 없는 시술
 - 선진의료기술을 통한 국제적 신뢰 구축
 - IT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고객유치
 - 의료비자, 의료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, 외국인 직접투자, 투자한도 확대허용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
 - 차별화된 틈새시장의 공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
 - 의료, 건강관리서비스, 허브상품의 동반/연계 성장
 - 경쟁평가시스템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
 -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
 - 해외환자 전용서비스센터 운영

3.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실태와 전망

- 제주도는 의료관광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, 민간병원, 외국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리조트, 헬스타운을 조성하고 있음. 우수 병원 유치를 위한 미국, 홍콩, 일본 등의 교민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의료관광 언어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
- 부산은 '2020 관광천국 부산' 마스터플랜을 통해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구체화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민간 주도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가 구축되어 있음.
- 대구는 올해부터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요르단, 중국, 일본, 중국 등 적극적인 해외의료관광단 모집을 추진 중. 올해 400여명의 외국인 의료관광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정

-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내용을 표명함. 평택경제자유구역은 미국 에모리대학교와 의료관광을 위한 병원 설립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,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국제도시에 국제병원설립과 엠디앤더스 암센터 유치를 추진
-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·알선을 허용하는 법률을 추진중이며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.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

4.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추진방안

□ 강원도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여건

- 항만과 국제공항을 통한 의료관광객의 접근성 용이
 - 2000년 속초-자루비노-훈춘-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운항 중
 - 내년까지 일본 니가타, 사카이미나토 항로 개설 예정
 -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기 운항 가능
- 인근 해외 도시의 높은 의료관광 수요
 - 극동러시아 지역 사람 중 80%가 한국 의료관광을 선호('08.4 관광공사)
 - 여행, 건강과 간병에 관심이 높은 일본 단카이세대(2007-2009년 사이에 정년을 맞이하는 베이비 붐 세대, 퇴직금이 500-800만원에 이룸)가 정년을 맞이함
-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 관련 시설 집적
 - 국내 최대의 콘도 집적지, 의료관광객 선호 1순위인 온천의 경우 강릉시에 4개의 온천관광지구가 개발되고 있으며 척산온천 등 국내 대표 온천관광지 집적. 워터파크, 해수욕장, 스키장, 골프장, 한류연계관광지 등 국내를 대표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관광시설과 인프라 집적

- 취약하지만 가능성 있는 의료 인프라

-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병원인프라는 취약
- 그러나 국내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클러스터와 도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건강기능성식품이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권에는 의과대학, 치과대학, 치기공학과 등 의료관련 분야의 인력 풍부

□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

-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

- 동해안권 지역은 극동아시아 지역과의 교통편의성 및 많은 의료관광객 수요, 국내 최고의 관광인프라,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 비해 저렴한 지가 등 의료관광 집적지를 위한 민·외자유치의 최적지라 할 수 있음
- 따라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관산업군을 동반육성

-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/전문인력/기업 육성

- 강원국제의료관광유치추진단 운영
- 의료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
- 의료관광 전문에이전시 육성

- 의료관광 One-Stop 서비스센터 설립 운영

- 정보수집-상품개발 및 입국 결정-입국수속-입국-의료관광-출국-사후 관리 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는 조직 설립

- 외국 유명 의료기관 및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헬스케어타운 조성

- 종합병원(외국계, 국내), 특화 전문병원, 건강검진센터, 양·한방의료센터
- 의료관광 one-stop 서비스센터, 첨단케어시설, 숙박 및 레저시설
- 헬스케어 연구센터, 의료관광 R&D 센터

-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헬스케어산업단지 조성(경제자유구역 추진 중점유치산업)

- 신소재, 해양바이오, IT 분야를 접목한 헬스케어산업을 경제자유구역 중점 유치산업으로 추진
- 해양바이오 ▶ 건강기능식품 산업
- IT ▶ USN기반의 u-헬스 산업

- 신소재 ▶ SoP(반도체패키지 집적시스템)를 이용한 의료기기 소재산업
- 의료기기 ▶ 개인용 헬스케어기기
- 의약품 ▶ 의약품위탁제조업(CMO)에 특화

- 단계별로 강원도에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

- 초기에는 영동지역 거점병원(예:현대아산병원)을 중심으로 특화전문병원 집적
- 속초항 및 동해항을 통한 극동러시아, 동북 3성, 일본서안지역의 의료관광객을 집중 유치
- 러시아 및 동북 3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특화(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중저가 상품)
- 짧은 기간 동안 동해안 지역에 높은 의료관광객 유치를 실현하고 국내외 민간 자금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헬스케어타운을 조성
- 헬스타운 내 외국계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을 유치
- 전 세계를 상대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기를 운항
- 헬스케어타운 내 전문병원에서 헬스케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제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, 의약품의 Test Bed 역할을 수행

특화된 단계별 의료관광 상품개발

	단 기	중장기
의료기관	국내 종합병원 특화 전문병원	외국계 전문병원 유치
진료과목	종합검진, 한방의료, 임플란트, 라식 등	고가 전문 진료과목 확대
상 품	중저가 의료상품 개발 -헬스케어타운 내 종합병원·특화병원과 동해안권 관광지, 온천, 레저 등을 연계한 상품	중저가에서 고가 상품 개발 -동해안 대표관광상품, 맞춤형 관광상품, 고가의 첨단케어시설 등 중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 구비
타겟지역	극동러시아, 동북3성, 일본 서안지역 등 환동해연안지역	환동해연안지역부터 미국, 중동 등 고급 의료수요지 확대
교통망	속초항 및 동해항을 통한 항로중심	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의료관광객 전용 전세기 운항 추가

의료관광산업 : 국내외 동향과 강원도 추진방향

I. 융복합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

- 산업의 복합화/융합화 개념의 확산
 - 세계적으로 산업의 복·융합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u-Health의 보편화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
 - 관광산업과 의료, 예방의료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관광의료산업을 창출·육성·집적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

-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
 - 개발도상국에서 1997년 시작된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인도와 태국을 중심으로 외화벌이, 고용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을 추진
 - 인도, 태국, 싱가포르에서는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추진

- 국제화, 정보화, 의료기술의 표준화에 따른 수요 확산
 - 국제화에 따른 국제관광과 여행이 용이해졌으며
 - 정보화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의료관광을 제공하는 측과 쉽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패키지 이용이 용이해졌고
 - 자국의 비싼 의료비에 대비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, 진보된 의료기술 및 표준화된 의료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

- 우리나라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수립
 -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
 -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환자의 비자제도 간소화,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
 -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, 문화관광부도 의료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

- 국내 지자체별로 의료관광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추진
 - 제주도, 부산, 인천, 대구 등을 비롯하여 국내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중
-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 의료관광산업의 현황과 추진전략, 성공요인, 향후전망을 살펴보고 강원도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여건을 분석한 뒤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

II. 국외 의료관광산업 동향과 시사점

1. 싱가포르

- 싱가포르는 2004년 26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6.5억 달러 수익 창출
 - 2012년까지 연 100만명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30억 달러 외화수입, 1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

〈표 1〉 싱가포르 내 해외환자의 추이와 전망

(단위 : 천명, 백만\$)

	2000	2002	2003	2004	2012
환자 수	147	212 (28.2)	230 (8.6)	260 (13.1)	1,000
총지출	430	550 (27.9)	650 (18.2)	750 (15.4)	3,000
부가가치	370	500 (35.1)	600 (20.0)	650 (8.3)	2,600
GDP 기여	0.25%	0.3%	0.3%	0.4%	1.10%

주 : ()내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 /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환자 제외

자료 : 싱가포르 관광청(2006)

-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추진
 - '아시아 바이오폴리스'를 기치로 세계적 제약회사를 유치하고, R&D공동 센터를 설립
 -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의학교육 받은 동남아 의사 활용, 국제 및 동남아 지역 내 의료회의, 전시회 및 연수를 다수 개최
 - 세계적 의료기관 및 대학과 제휴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
 - 동남아 내 대학병원 및 의료기관에 투자하여 싱가포르방문단이라는 의료 무역단 조직

-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(OneStop 서비스센터) 운영
 - 진료예약, 항공권 구입, 숙박 및 관광, 공항 픽업, 통역, 환전,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

2. 태 국

- 외래 관광객의 40%를 의료관광객으로 보고 있으며 관광과 의료서비스 연계 하는 ‘의료관광’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
 - 세계 제일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이룩하여 2007년 현재 150만 명의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약 2조 6,000억 원의 의료관광 수입을 올림

〈표 2〉 태국 해외환자의 추이와 매출액

(단위 : 만 명)

	2001	2003	2005	2007
해외환자 수	55	97.4	128	150
매 출		264억 바트 (7,632억원)		800억 바트 (2조 6천억원)

- 치료 + 휴양컨셉으로 성공
 - 태국의 경쟁우위 산업인 관광을 최대한 활용(방콕, 푸켓 등 휴양지 연계 상품)
 - 태국 상무부와 관광청의 적극적 후원과 홍보
-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
 - 주요 해외 의료관광객은 일본(16.7%), 미국(8.7%), 영국(7.6%), 독일(3.8%) 순으로 선진국이 높은 순위 차지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03)
 - 선진국 고령자를 타겟 시장으로 선정하여 타 국가와 차별화
 -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장기 투숙·요양을 위한 휴양리조트, 여가 프로그램, 일대일 간호·간병 서비스 제공
- 의료, 건강관리서비스, 허브상품의 동반성장
 -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스파, 전통마사지, 허브상품 등의 융합된 복합의료관광 시장을 창출
 - 건강관리서비스, 허브상품 관련 수입이 매년 30% 성장 기록

- 외국인환자 유치에 위한 투자 및 규제 자유화
 - 외국인투자자가 태국 병원 총 지분의 49%까지 투자
 - 영리법인, 주식시장 상장 허용,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고급 인력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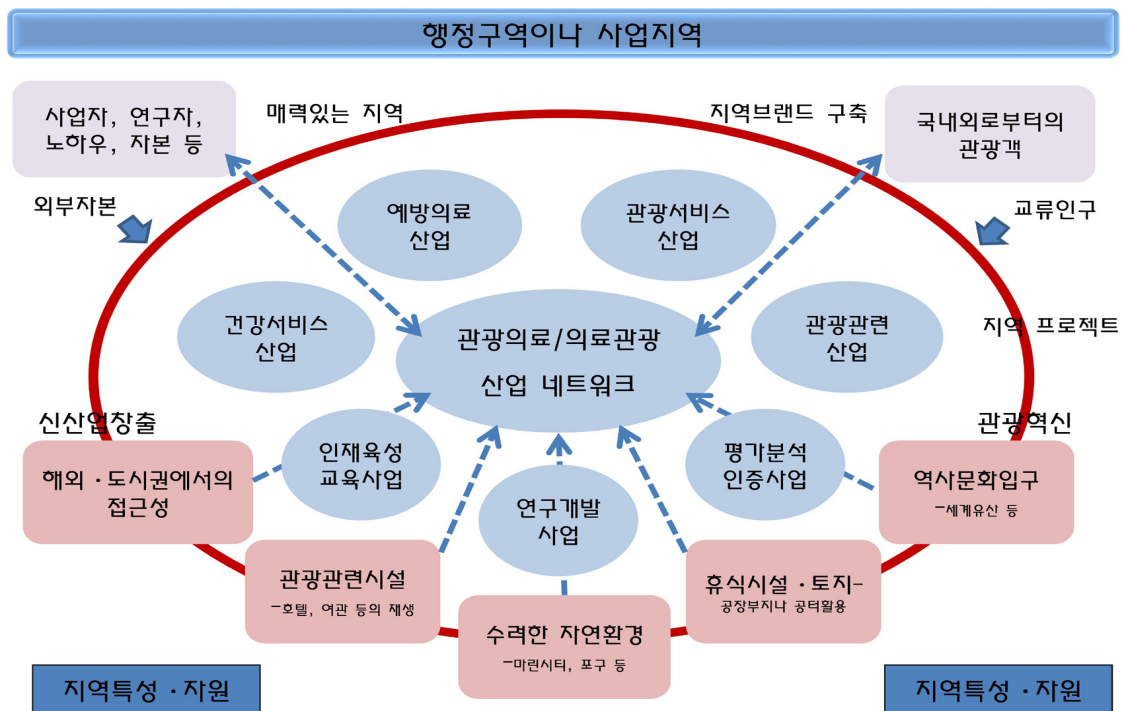
3. 인도

- 저렴한 진료비, 짧은 시술대기시간, 선진 의료기술 확보, IT강점을 활용한 홍보 및 고객유치, 정부 지원정책이 강점
 - 수술비용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 1/8 정도이며 태국에 비해 30% 이상 저렴
 - 영국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지만 인도는 대기시간이 필요 없음
 - 뉴욕 보건국(2002)에 따르면 심장혈관우회수술의 성공률은 인도가 98.7%, 미국이 97.5%로 미국을 상회
 - 의료관광 전문회사(Mediescpes India, Travelite India, Medical Tourism India, Medicity India)는 병원, 여행사, 전용 컨설턴트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
 - 아폴로 병원, 에스코트 심장연구소 등은 외국 환자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
 - 본인 및 동반자는 1년간 비자(메디칼 비자) 가능
 - 의료관광을 다른 수출산업과 같이 우대하고 의료부문의 건강 보험 해외직접 투자 제한을 26%에서 51%로 확대
- 의료관광객 급증
 - 2004년 의료관광객은 30만 명이었으며 그 규모는 매년 15%씩 성장하여 2012년에는 20억 달러 예상(맥킨지&인도산업연합회)
 - 의료관광 선두병원인 아폴로 병원의 경우 2001년부터 3년간 약 6만명(전체 환자의 9%) 외국인환자 유치
- 다양한 의술을 통한 질병의 치료와 정신적 수양으로 의료관광객에게 관심을 받음
 - 대표 상품으로는 아유베다(5천년 이상 인도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어 온 의학체계), 요가, 세계적 명소인 타지마할을 하나로 묶은 여행패키지가 인기

4. 일 본

- 정부가 의료관광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지역만들기의 일환으로 의료관광을 추진
 - 지역진흥을 위하여 medical tourism 또는 health tourism의 이름으로 시민병원을 재건축하고 명의를 초빙

- 일본 와카야마현의 관광의료산업 창조네트워크 사례
 - 창 립 : 2003년 4월
 - 목 적 : 관광산업과 의료, 예방의료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관광의료산업을 창출·육성·집적하여 도시 브랜드 구축과 지역경제 재생, 주민 및 방문객의 건강을 증진하여 매력있고 활력있는 지역만들기에 기여
 - 주요사업
 - 관광의료산업의 실시 및 집적을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
 - 관광의료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
 - 동물세라피 사업, 어린이 심신 건강 육성사업, 고령자 심신 건강력 증진 사업, 동물과 인간의 공생사업, 아동 심리 및 의료심리연수사업 등



〈그림 1〉 일본 광역자치단체(와카야마현)의 의료관광산업의 네트워크 개념도

5. 해외 각국의 의료관광 성공요인

- 선진국 대비 저렴한 수가와 대기시간이 없는 시설
- 선진의료기술을 통한 국제적 신뢰 구축
- IT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고객유치
- 의료비자, 의료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, 외국인 직접투자, 투자한도 확대허용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
- 차별화된 틈새시장의 공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
- 의료, 건강관리서비스, 허브상품의 동반/연계 성장
- 경쟁평가시스템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
-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
- 해외환자 전용서비스센터 운영

Ⅲ.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실태와 전망

1. 자치단체 및 정부 동향

1) 제주특별자치도

- 의료관광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조직구성
 - 제주의료관광상품개발심의회(의료진, 관광관계자, 전문가, 행정 참여)
 - 중국 - 부유층 대상으로 높은 의료기술과 자연관광자원, 4년간 비자
 - 일본 - 건강지향층에 저렴한 의료비와 연계한 건강관련패키지 홍보
 - '08년 6월 중 20명 내외의 의료산업유치단 구성
- 민간병원, 외국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리조트, 헬스타운 조성
 - 2009년 서귀포시 우리들병원이 1,8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, 콘도, 병원을 조성하는 웰니스리조트 착공 예정
 - ※ 우리들병원은 '국제환자센터'를 운영하여 2005년 현재 411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고 연평균 44.5%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 -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6억불을 투자하여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(서울대병원 분원형태 참여)

- 우수병원 유치를 위해 미국, 홍콩, 일본 등의 교민회와 파트너십 구축
 - 미국 PIM-MO는 제주시에 100만㎡의 의료관광휴양단지 조성 계획('08. 7월 중)
 - 일본 의진회는 서귀포지역에 10만㎡의 메디컬리조트 추진 예정
- 의료관광 언어지원 서비스 체계구축
 - 의료관광 통역사 및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계획 수립

2) 부산

- '2020 관광천국 부산' 마스터플랜('08/6/19)을 통해 의료관광산업 육성 구체화
 - 의료서비스 특구(부산진구 서면, 해운대구), 의료·관광복합단지 조성
 - 의료관광단지에 의료서비스센터(검진 및 특화 진료, 한방 클리닉, 성형 등), 숙박시설(휴양 중심의 호텔, 리조트), 건강관리센터(스타, 요가, 미용 등) 등이 들어설 예정
- 전국 최초의 민간 주도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구축
 - 의료서비스 특구(부산진구 서면, 해운대구), 의료·관광복합단지 조성

3) 대구

-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
 - 올해 민간교육기관인 dmc대한병원경영센터에 의뢰하여 총 40명 교육
 - 경북대병원 모발이식센터, 대구한의대 한방진료센터, 종합병원 검진센터, 중구 반월당의 치과 및 성형, 피부미용 분야 등의 전문 코디네이터 집중 육성
- 의료관광을 겨냥 요르단과 자매결연 추진
 - 현지 국내 대기업을 통해 요르단에서 대구의 의료수준을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 도출
 - 요르단을 포함한 중동 부호들은 해외에서의 진료와 의료서비스에 높은 관심
 - 요르단 수도 암만시와 자매결연 추진과 함께 요르단 국왕의 대구 방문을 적극 추진할 계획

- 대구시는 올해 중국, 일본,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해외 의료 관광단 모집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400여명의 외국인 의료관광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

4) 경제자유구역

-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표명
 -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'규제완화,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방안' 보고에서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,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,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외국병원의 보양온천업,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·알선 행위를 허용할 방침을 표명
- 평택FEZ는 미국 에모리대학교와 의료관광을 위한 병원 설립 MOU 체결 예정
 - 에모리대학의 에모리대학병원은 심장학, 정형학, 신경학 분야에 높은 명성을 얻고 있음
 - 평택FEZ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의료기관을 건립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컨벤션 센터와 의료관광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 건립을 추진할 계획
- 인천FEZ는 송도국제도시에 국제병원설립과 앰디앤더슨 암센터 유치를 추진
 - 미국종합병원 순위 7위인 뉴욕 프레스비테리안(NYP)병원을 2005년 선정하고, 8만 2,000㎡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예정
 - 송도에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병원 앰디앤더슨 암센터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유치 추진
 - 최근 앰디앤더슨 측이 최종 투자의향서(LOI) 전달, 현재 양측의 TF팀을 중심으로 양해각서(MOU) 체결 준비중

2. 정부계획 및 향후전망

1)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

-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·알선을 허용하는 유치 활성화(임시국회 의료법 개정추진) 추진
 -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(G-1)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 제도 간소화('08/4/21, 법무부시행)
 - 비자 신청 첨부서류 최소화(병원영업허기서 등 6개 → 의사소견서 등 3개) 등 관련 절차 개선('08/4/21, 법무부시행)

-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
 -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(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 유도)
 -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
(해외진출 관련 사업, 해외환자 유치 사업,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)
 - 양·한방 협진체계 구축
(산부인과 병원 내 한의원 별도 개설, 대학병원 내 한방병동 개설 등)
 -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 유도
 - * 특화병원 :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
 - * 취약지거점병원 :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·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

-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('08/9/30일까지 국회 제출)
 - 외국의 의사·치과의사·약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·의료기사의 경우에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 가능
 -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
 -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호텔 등 숙박업 영업 허용 ('08/6/30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)

- 대상국가별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
 - 현지 에이전시·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
 - 미국 :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, 중증질환 위주 고가 상품
 - 일본/중국 : 미용성형, 치아미백, 라식,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
 - 의료관광 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
-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여,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('10년 시행)
 - 현 「의료기관 평가제도」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해외환자들의 신뢰가 낮아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JCI 등 국제인증에 높은 관심
 - * JCI(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,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)
 - ⇒ 싱가포르, 태국 등은 JCI의 인증을 통해 해외환자들의 신인도를 제고
 - ⇒ JCI인증의료기관 : 한국(1, 세브란스), 싱가포르(12), 태국(4)
-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「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」의 법인화 추진('08.12.31일까지)
 - 국제의료 아카데미 운영('09)
 - 의료코디네이터 양성,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운영
 - 의료코디네이터를 통해 해외환자에게 「입국-치료-관광-출국」까지 one-stop service 제공

2) 향후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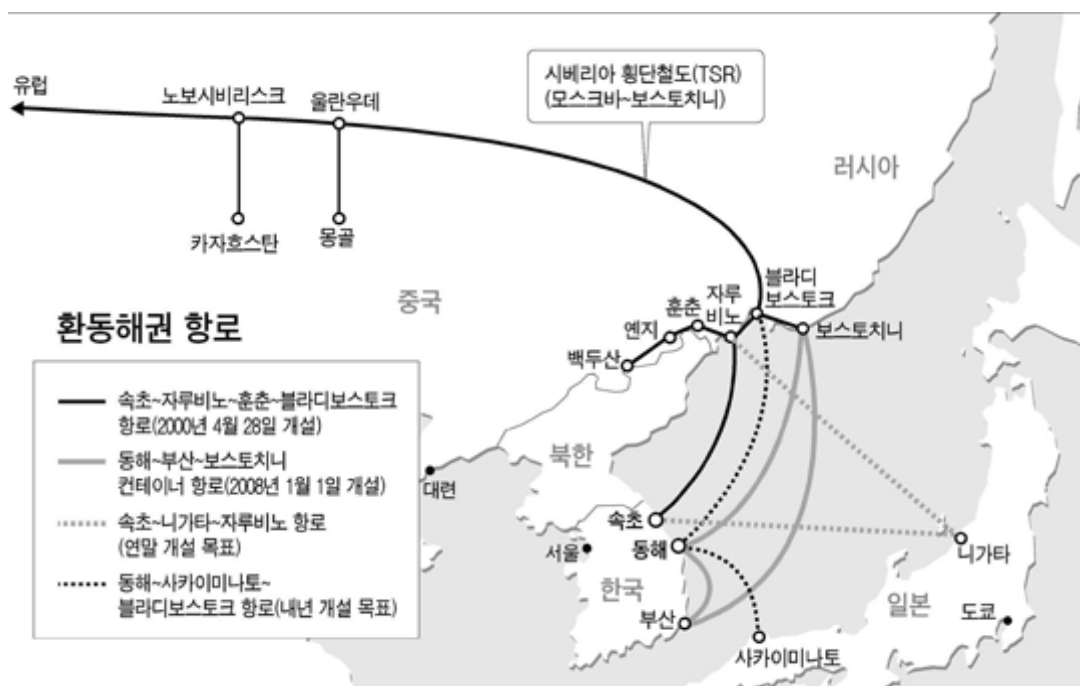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2년까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마스터플랜 발표
 - 해외환자 10만명 유치시 의료에서 총 3,7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9,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
 - ⇒ 2008년 : 환자 3만명, 진료수입 1,121억 원(1인당 평균 진료액 379만원), 고용창출 1,035명
 - ⇒ 2012년 : 환자 6만 3천명, 진료수입 2,354억원, 총유발효과 4,129억원, 관광수입 1,734.7억원, 고용창출 1,232명
 -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언어의 문제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3,000명의 코디네이터 양성 필요

- 문광부 의료관광활성화 추진계획 발표
 - 의료관광을 고수익 창출을 위한 신개념 관광으로 정의
⇒ 의료서비스 → 레저 → 휴양 → 문화활동으로 연계
 - 올 6월 인천, 공사TIC에 의료관광안내소 설치, 2009년 제주, 부산 공항 및 부산항 확대 시행
 - 11월 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과정교육 실시, 의료관광 영어 온라인교육 9월 오픈

IV.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추진방향

1. 강원도의 의료관광산업 추진여건

- 항만과 국제공항을 통한 의료관광객의 접근성 용이
 - 2000년 개설된 속초-자루비노-훈춘-블라디보스토크 항로로 극동러시아 및 중국의 동북 3성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
 - 올해와 내년 일본의 니가타와 사카이미나토 항로가 개설되면 일본의 의료관광객 유치도 매우 유리할 전망
 - 양양국제공항을 통하여 주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기 운항이 가능



- 인근 해외 도시의 높은 의료관광 수요
 - 극동러시아 지역 사람 중 80%가 한국 의료관광을 선호 ('08.4. 한국관광공사 조사)
 - 종합건강검진(33.3%), 한방진료(32.5%), 치과진료(16.2%)의 순으로 선호
 - 연계 관광프로그램으로는 '스파, 찜질방, 온천관광 사우나'(41.8%)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 문화체험(32%), 한국음식 및 상품체험(26%)이 높게 나타남
 - 일본 단카이세대 퇴직으로 일본의 의료관광객 급증 예상
 - 단카이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총 680만명이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정년을 맞이하게 됨
 - 일본 정부가 3년간 단카이세대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규모는 50조엔에서 80조엔에 이룸
 - 이들은 여행, 건강과 간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의료관광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됨

-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관련 시설 집적
 -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국내를 대표하는 콘도가 집적되어 있으며
 - 호텔을 포함하여 중저가에서 고가의 다양한 숙박시설이 완비
 - 의료관광객의 선호 1순위인 온천은 강릉시에 4개의 온천관광지구(소금강 온천지구, 석교온천지구, 강릉관광온천지구, 심곡·금진 온천지구)가 개발되고 있으며 척산온천 등 국내를 대표하는 온천관광지가 집적
 - 용평리조트, 알펜시아에 새롭게 대규모 워터파크가 개장될 예정이며 워터피아(한화설악리조트)는 시설을 확장할 계획임
 - 이 외 해수욕장, 스키장, 골프장, 국립공원, 세계문화유산, 한류연계관광지 등 국내를 대표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관광관련 시설과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의료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관광연계상품이 풍부

- 취약하지만 가능성 있는 의료 인프라
 -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병원인프라는 취약
 - 그러나 국내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있어 의료관광과 연계가 가능하며 바이오산업분야에서 건강기능성식품 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

- 동해안권 지역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(의학과, 간호학과), 강릉대학교 치과대학, 동우대학의 치기공학과 등 의료관련분야의 인력이 풍부

2.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

-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
 - 강원도의 의료관광산업 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관광을 위한 전문병원만 설립되면 강원도는 동아시아 최고의 의료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
 - 특히 동해안권 지역은 극동아시아 지역과의 교통편의성 및 많은 의료관광객 수요, 국내 최고의 관광인프라,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 비해 저렴한 지가 등 의료관광 집적지를 위한 민·외자유치의 최적지라 할 수 있음
 - 따라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관산업군을 동반육성
 - 예방의료산업, 관광 및 관광서비스산업, 연구개발사업, 인재육성 교육사업, 건강서비스사업 등
-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/전문인력/기업 육성
 - 강원국제의료관광유치추진단 운영
 - 국외 의료관광객 유치전략 기획, 의료관광 홍보 및 자료수립, 전문인력양성 계획, 국제인증 등 강원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조직으로 육성
 - 도내 의료계, 공무원, 관련전문가, 관광회사 등 의료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
 - 의료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
 - 도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료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
 - 도내 대학 중 러시아어, 중국어, 일본어, 영어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코디네이터 수업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
 -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 구역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확대 실시
 - 의료관광 전문에이전시 육성
 - 여행사와 의료컨설팅업체를 연계하여 다양한 의료상품 개발과 외국보험사 등과 합작된 형태의 전문에이전시 설립 및 운영 지원

- 의료관광 one-stop 서비스센터 설립 운영
 - 정보수집-상품개발 및 입국 결정-입국수속-입국-의료관광-출국-사후관리 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는 조직 설립
- 외국 유명 의료기관 및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헬스케어타운 조성
 - 의료관광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유명 의료기관 유치
 -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헬스케어타운 조성
 - 종합병원(외국계, 국내), 특화 전문병원, 건강검진센터, 양·한방의료센터
 - 의료관광 one-stop 서비스센터, 첨단케어시설, 숙박 및 레저시설
 - 헬스케어 연구센터, 의료관광 R&D 센터
-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헬스케어산업단지 조성(경제자유구역 추진 중점유치 산업)
 -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집적
 - KIST강릉분원(천연물소재 관련 연구 특화)
 -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강릉연구센터 유치 협약
(신개념 건강기능식품에 특화된 연구 추진 예정)
 - 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 중 해양유래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인프라 정비
 - 강릉과학산업진흥원내 정보문화사업단을 중심으로 USN(무선센서네트워크) 기술 특화
 - 따라서 신소재, 해양바이오, IT 분야를 집목한 헬스케어산업을 경제자유구역 중점 유치산업으로 추진
 - 해양바이오 ▶ 건강기능식품 산업
 - IT ▶ USN기반의 u-헬스 산업
 - 신소재산업 ▶ SoP(반도체패키지 집적시스템)를 이용한 의료기기 소재 산업
 - 의료기기 ▶ 개인용 헬스케어기기
 - 의약품 ▶ 의약품위탁제조업(CMO)에 특화
- 단계별로 강원도에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
 - 초기에는 영동지역 거점병원(예:현대아산병원)을 중심으로 특화전문병원들을 집적시키고 속초항 및 동해항을 통한 극동러시아, 동북3성, 일본서안지역의 의료관광객을 집중 유치

- 동해안 관광자원의 장점을 극대화한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러시아 및 동북3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특화(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중저가 상품)
- 짧은 기간 동안 동해안 지역에 높은 의료관광객 유치 실현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국내외 민간 자금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
- 헬스타운 내 외국계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최고의 의료시설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고가 상품을 개발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기를 운항
- 헬스케어타운 내 전문병원에서 헬스케어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제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, 의약품의 Test Bed 역할을 수행

〈표 3〉 특화된 단계별 의료관광 상품개발

	단 기	중장기
의료기관	국내 종합병원 특화 전문병원	외국계 전문병원 유치
진료과목	종합검진, 한방의료, 임플란트, 라식 등	고가 전문 진료과목 확대
상 품	중저가 의료상품 개발 -헬스케어타운 내 종합병원·특화병원과 동해안권 관광지, 온천, 레저 등을 연계한 상품	중저가에서 고가 상품 개발 -동해안 대표관광상품, 맞춤형 관광상품, 고가의 첨단케어시설 등 중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 구비
타겟지역	극동러시아, 동북3성, 일본 서안지역 등 환동해연안지역	환동해연안지역부터 미국, 중동 등 고급 의료수요지 확대
교통망	속초항 및 동해항을 통한 항로중심	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의료관광객 전용 전세기 운항 추가